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63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29일 (음력 12월 24일) 화요일

한전공대 부지 '나주혁신도시 부영CC' 확정



전남도가 한전공과대학(일명 킵코텍 · Kepco Tech)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한전에 제안한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부영(CC)골프장. 부영CC는 총면적 72만21.8㎡(21만7806.5평)로 가운데 골프장을 중심으로 전체 부지의 절반이 공대부지로 제안됐다.

전남 나주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부영골프장(CC) 일원이 한전공과대학(킵코텍 · Kepco Tech) 최종 입지로 선정됐다. 김우승 한전공대 입지선정위원회 국내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전공대 부지 선정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도 나주 부영CC 일원은 92.12점을 받아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일원(2위)·87.88

점을 물리치고 한전공대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 전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한 부영CC 일원은 약 120만㎡(대학 40만㎡ · 연구 및 클러스터 80만㎡)에 달한다. 부영CC 일원은 주요 항목 심사 결과 ▲부지 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개발규제 항목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광주 북구 첨단3지구, 87.88점 그쳐 2위 '고배' 선정위 "부지조건·인허가 용이성 등 높은 점수"

특히 부지의 물리적 환경과 제공조건 운영 지원계획, 인허가 용이성 등 항목에서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일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장성 일원에 걸쳐있는 광주 북구 첨단 3지구 일원은 부지 조건·경제성·지자체 지원계획 등 주요 항목심사 결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운영 지원계획, 인허가 용이성 등 항목에서 나주 부영CC 일원에 밀렸다. 김 위원장은 "심사는 경제성과 지원계획을 제외하고 산학연 연계, 정주환경 및 접근성 항목, 개발규제 등 1단계와 경제성과 지원계획을 심사하는 2단계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산하에 ▲구성위원회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등 3개의 전문 위원으로 구성, 각 위원회는 구성 시기와 역할을 달리해 외부의 영향력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대 입지 선정을 위해 전문 용역사

'A.T.Kearney'(A.T커니)를 통해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6곳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앞서 광주시는 ▲북구 첨단 3지구 ▲남구 압촌동 에너지밸리 산단 인근 ▲남구 송촌보 일원 3곳을 제안했다. 전남도는 ▲나주 부영 CC 일원 ▲전남도농업기술원 ▲전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일원 3곳을 제안했다. 입지 선정 심사위는 지난 28일 광주시와 전남도를 상대로 서울 사무실에서 첫 번째 심사 절차로 지자체별 입지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다. 24일에는 광주지역 후보지 3곳과 전남지역 후보지 3곳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고 현장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1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주 1곳·전남 1곳 등 총 2곳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했다. 위원회는 2단계 평가를 통해 각 심사위원들이 적어낸 평가 점수표는 1단계 점수와 합산하지 않고 바로 봉인했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1·2단계 평가 점수를 합산, 전남도 나주 부영 CC 일원을 한전공대 최종 부지로 확정했다. 김경환 기자



단식 맞아?

자유한국당은 27일에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등에 반발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이후 나흘째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나머지 야당은 "단식이 아니라 릴레이(Relay) 식사" 릴레이 다이어트라며 비난했다. 한국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서 릴레이 단식 중인데, 1개 조의 단식 시간이 5시간 30분 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지난 24일 정치적 책임성 논란이 제기된 조해주 상임위원이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그대로 임명되자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페이스북에는 '조동성 글이 씁쓸하다. 민주당 우원석 의원은 "오후 2시 30분까지 점심 먹고 오후 8시에 저녁 먹는 것도 단식이냐"며 "렐 난 매일 단식을 세 번씩 해네 개그다개그'라고 썼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5·18 최후항쟁지'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안 심의

심의 결과 토대로 29일 최종보고회...6개관 복원 밑그림 발표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위원회가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6개관 복원 기본계획안을 심의해 확정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이날 오후 2시부터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옛 도청 6개관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심의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는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장 5·18 기념재단·오월 어머니집 이사장 등 위원 15명이 참여

했다. 위원들은 복원 기본계획안 용역을 맡은 조선대 민주화운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의 발표를 듣고 복원 기초 계획을 정한다. 연구원은 지난 6개월 간 연구를 거쳐 '옛 도청 본관·별관·회의실, 전남경찰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 6개관 내·외부와 연결 통로 복원 기본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 심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29일 오후 3시께 옛 도청에서 최종 보고회가 열린다. 연구원은 옛 도청 별관과 전남경찰청은 제한적으로 복원(건축법 등 고려)하고, 나머지 4개관은 원형 복원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옛 도청 본관 회의실 본관·별관 연결

통로, 서무과(1층·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상황실), 도지사실(2·3층)을 본래 모습대로 복원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전남경찰청 외부에 남겨진 '총탄 추정 자국 수백 여개'를 발견한 연구원은 6개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탄흔 감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감정 결과 탄흔으로 드러나면 원형 복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지난달 7일 경찰청 본관 뒤쪽과 오른쪽에서 탄흔 추정 흔적을 최초로 찾은 뒤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 옛 도청이 리모델링되면서 방송실이 철거되고 시민군 상황실 자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시민군 지도부가 활동했고 최후의 퇴로였던 옛 도청 본관과 별관 3~4층은 단절됐다. 5·18 희생자 신원 확인 장소였던 옛 전남경찰청과 경찰청 민원실도 변형됐다. 신봉우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 농지연금사업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농지매매·임대차·매입비축·임대수탁
· 매매·임대를 통한 영농규모확대 지원
· 고령은퇴, 이농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비축하여 임대
·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위탁 받아 임대
청년창업농, 2030세대, 귀농인 농지지원
· 청년창업농의 빠른 영농정착을 위해 우선 지원
· 생애 첫 농지구입자금 저리 지원, 5~10년 장기임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재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 및 환매 보장 등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중도인출 가능)
-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 임대 시 매월 보조금을 지급(75세까지)

독특한 농지관리 전문가 농지은행 | 든든한 노후생활 도우미 농지연금 | 문의 전화 1577-7770